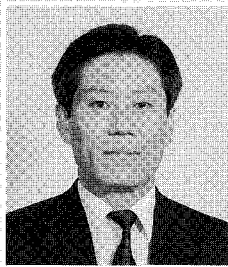


닭고기 소비 활성화와 수입육 대응방안



정진성
(사)한국계육협회 상무

1. 닭고기 소비 활성화

21세기에는 농축산물의 수출입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각 나라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위주로 특성화 될 것이며 각개별 품목의 자급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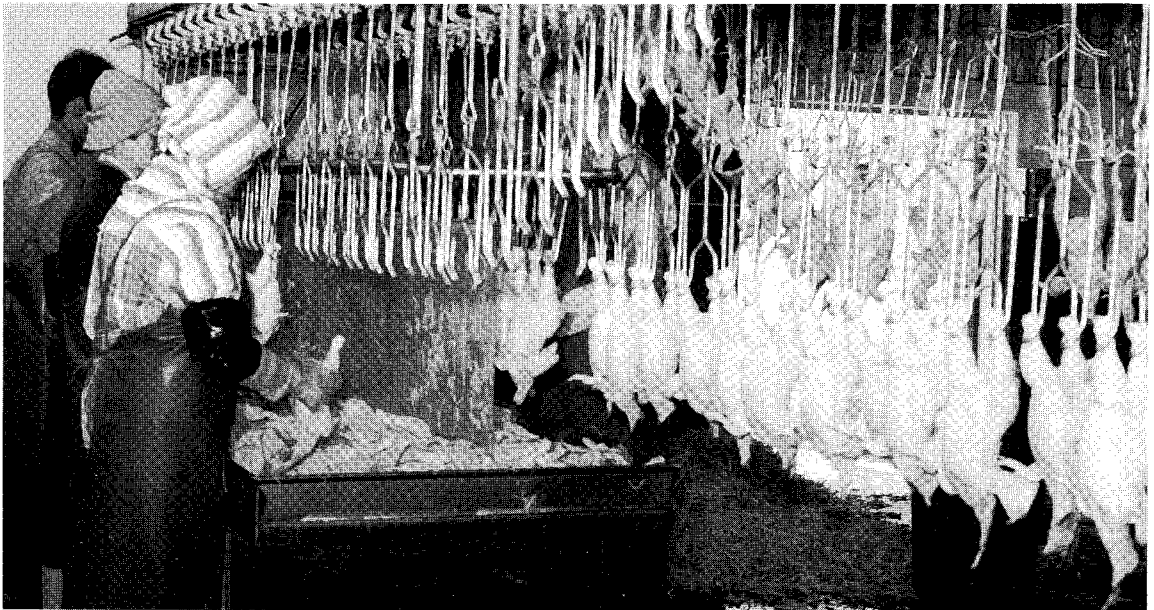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전체 농업 무역수지의 흑자여부에 따라 식량자급도가 매겨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축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전체적인 농업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이 경우 식량자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농업대전망 2000」에 의하면 육계는 앞으로 원화절상, 국내의 가격차, 중국산 닭고기 수입제한 해제가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외식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값싼 수입육을 사용하므로써 수입육의 이용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지난해의 경우 45,975톤의 수입 닭고기가 수입되었으나 금년도는 그보다 많은 닭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의 육계가격 하락과 수입증가로 농가의 사육심리를 위축시키고는 있으나, 육용종계 입식량, 배합사료 생산량, 병아리 생산 잠재력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는 국내 생산량이 29만톤으로 전년대비 3.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육계가격을 국내 과잉생산과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값싼 수입육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산지 가격의 경우 점차 하향 안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소비는 외식산업 발전 등으로 젊은 층이 닭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1인당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산 닭고기 소비확대 및 외국



산 닭고기와 차별화를 위해 협회에서 자체 제작한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를 보급하여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안전성 홍보를 통한 닭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회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뉴캐슬병의 대 언론보도 등으로 닭고기 소비가 감소, 육계 산 지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장기간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가시화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대적인 국내산 닭고기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닭고기 소비확대 및 외국산 닭고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주요 홍보내용은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안전성과 함께 국내산 닭고기임을 보증하는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광고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우선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과 품

질보증마크의 홍보를 위해 1만부의 포스터를 제작, 전국 국내산 닭고기 사용업소에 배포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MBC 여성시대 양희은, 김승현 시간대에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달 초순부터 수도권 및 서울지역 버스외벽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여성전문잡지 광고를 게재하는 등 닭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닭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닭고기 요리홍보카드를 금년에도 매월 10만매씩 제작, 대형백화점 20개소에 비치, 배포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 개최되는 '2000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에도 적극 참여하여 닭고기 브랜드 시대임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닭고기 소비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문제로는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처벌 및 명예감시원 운용 강화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자조금 제도

확대 운영 등이 있다.

2. 수입닭고기 대응방안

국내 육계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육계 생산비중 초생추의 비율은 23~19%이나 미국은 17~15%로써 국내의 초생추 비중이 6~4%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또한 육용실용계 병아리값의 변동이 큰 국내의 경우 종계업과 연계하면 가격면에서 알 수 있듯이 육용병아리 가격이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계열화 참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협회 회원사의 경우 병아리를 구매시 연중 하한가 200원, 상한가 400원을 유지기로 하였다.

특히 국내 경우 육용실용계 병아리값의 변동이 심한 편이므로 육계계열화 체계에 종계업을 도입하여 가격면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육계부화 부분은 가장 먼저 발전해왔다. 육용계의 도입과 함께 부화기술도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사료부분과 더불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목해왔다. 그 결과 부화능력은 수요에 충족할만한 수준에 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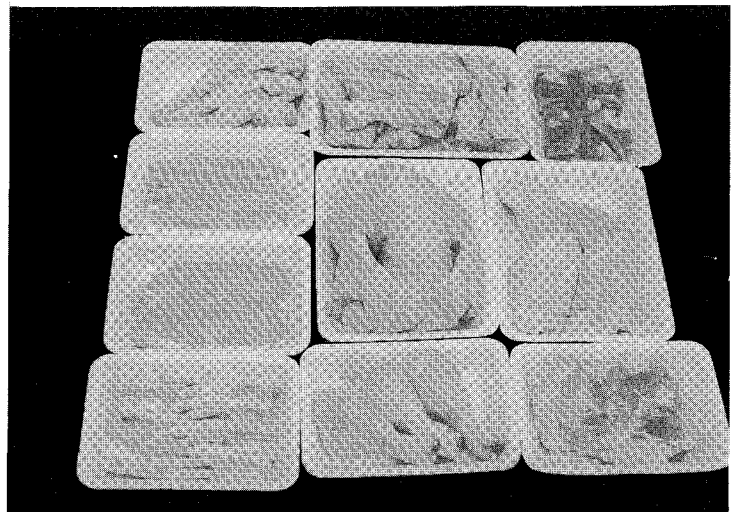
현재 병아리 가격은 외부구입시 400원대에서 최근 300원대로 하락하였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시 2~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료와 함께 생산원가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료는 육계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 생산체계에서는 기업적인 사료공장이 육계사료를 제조하여 사육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농가는 가격수용의 입장에 있어 가격과 품질면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계육산업이 성장 발전되면 사료비의 문제는 생산비 인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결되리라 본다. 이는 통합주체의 사료집하장에서 원가성의 사료가 사육농가에 수용되어 사료비 절감이 되게 된다.

직접 소유하는 사료공장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 공장과의 원가성 계약에 따른 주문배합 사료 체계로 나간다면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육계산업은 현재 각종 질병에 의한 피해를 크게 받고 있다. 피해제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육시설의 사육환경과 사양기록부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고, 우선 종계사육에서부터 육계출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예방체계를 점검하여 질병



의 전염과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사양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계열화 체계는 질병관리를 철저하게 하므로 예방은 물론 집단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종계로부터 부화, 사육시설, 사육, 기록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빈틈없이 관리하고 약품 공급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하면서 구매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사료 납품차량 뿐만 아니라 닭 출하시 오염된 가축수송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규정에 의한 어리장의 소독상태와 계분등의 청소상태가 양호한 생닭 운반차량 출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계열업체와 계약사육농가의 경우 사육 성적 평가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해온 우리의 경우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많은 원가상승 요인을 안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의 경우 사육계약시 출하체중에 따라 일정하게 기준 사료요구율을 정해놓고 출하후 실제 사료요구율이 기준 이상이면 보너스, 기준 이하면 페널티를 추가하는 정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주간단위로 출하한 전체 사육농가의 평균성적을 산출하여 평균 성적 이상 농가에게는 보너스, 이하 농가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두 평가방식의 차이는 상대평가의 경우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노력을 통해 생산원가가 절감이 가능한 반면 절대평가는 매 사육시 기준 사료요구율을 바꾸지 않는 한 현 수준이상의 원가절감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전개하게 되면 육계출하체중 증가 및 육계생산원가를 낮

추어 육계시세의 안정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경쟁국 수준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단행해야 한다.

육계 생산성 향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낙후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축사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밖에도 세제면에서 배합사료, 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놓여민개인, 위탁영농회사, 영농회사법인 등에 극한되어 현재 전체 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계열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본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사육비의 사료경제성에 있어서 1파운드(lb)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소요량은 1lb의 닭고기 생산을 위해 2lb의 사료가 필요한데 비해, 돼지고기는 3lb의 사료를 그리고 쇠고기는 약 7lb의 사료를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그 동안의 모든 농가에 나눠주는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위주의 생산적 지원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생산원가가 절감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경쟁국처럼 기업경영방식인 통합경영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다수의 소규모 농가를 규모화된 소수의 농기업 형태로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조속히 선진국 수준의 생산원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다같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양계**